

‘풍수해 보험’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 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농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전남 농촌의 경우 매년 홍수, 태풍 등의 피해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지역임에도 지역민들의 가입이 극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험료는 시설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61~6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가입자는 나머지만 부담,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도내 풍수해 보험 대상 72만6천969세대 가운데 가입 세대는 5천260 세대로 가입률이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4월 시행 불구 농민 인식 부족 가입률 고작 0.7% 그쳐

정부가 보험료 61~68% 지원...복구비 90%까지 보상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 혜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이라는 점도 가입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주택이나 소규모 시설 가입자는 2~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우 전업농가(50마리 기준)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140만

원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점도 기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납부한 보험금의 수십배에서 수백 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100㎡ 규모의 주택은 재난으로 파손시 국가로부터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만을 받지만, 연 2만8천원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

우 최대 5천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한우축사(200㎡) 파손시 재난지원금의 최대 850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 2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3천591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범실시 기간 중인 지난 해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로 90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나주 특용작물 자동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1억1천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한편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경남(3천626건), 경북(3천29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풍수해 보험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여수·나주시·곡성군 등 전남 3곳을 비롯해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1년 11개월)한 뒤, 올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농협 함평군지부 “일손 도우러 왔어요”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전병덕) 직원들이 지난 14일 함평군 손불면 공신1구 신흥마을 강대창, 조태선씨 비닐하우스에서 마늘 수확작업을 돕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나주 온누리 태양광발전소 준공

1.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14일 나주에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주)온누리태양광(대표회장 임원식)은 지난해 영암군 신복면에 영암발전소(538kw)를 세운데 이어 2차 사업으로 150억원을 투자해 나주시 공산면에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이호계 송실대총장, 권정달 한전산업개발 회장, 신정훈 나주시장, 임원식 온누리태양광 회장 등이 참석했다.

1.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14일 나주에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주)온누리태양광(대표회장 임원식)은 지난해 영암군 신복면에 영암발전소(538kw)를 세운데 이어 2차 사업으로 150억원을 투자해 나주시 공산면에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이호계 송실대총장, 권정달 한전산업개발 회장, 신정훈 나주시장, 임원식 온누리태양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16일부터 가로등 격등제 광산 에너지절약운동

광산군이 16일부터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실천운동 일환으로 ‘가로등 심야 격등제’를 실시한다.

광산군은 주요도로 10개 노선에 설치된 8천963개의 가로등가운데 교차로와 교량, 상가지역을 제외한 8개 노선 4천33개(45%)를 격등제로 운영한다.

격등제 시행으로 연간 6천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5개노선 3천500개 가로등에 대해 격등제를 적용해 5천여만원의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나주 중등교장단 “우수 인재 양성 총력” 결의

고유가시대 ‘직원 카풀제’ 등 실천키로

나주시 중등 교장단들이 우수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나주시 중등교장단과 생활선도협의회관계자들은 지난 13일 공산고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임원빈 나주교육장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통해 실력 나주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찾아오는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설문조사와 쪽지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지도 담당자 및 학교 간 네트워크를 형성, 합동 교외지도 및 생활지도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와 교직원간 ‘카풀제 운영’ 등 에너지 10% 절약운동에 전 교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

강진 수협조합장 보궐선거 ‘후폭풍’

선관위 “돈 봉투 적발” 유권자에 자수 안내장 발송

강진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품 수수문제가 불거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전체 유권자 1천 900여명에게 오는 20일까지 금품수수 관련 자수 안내장을 발송했다.

강진군 선관위는 안내장에서 “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 조치가 취해지나 시한을 넘기면 정밀 조사를 거쳐 수수한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안내장 발송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품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가 조합원에게 1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현장이 감시단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적발 과정에서 A씨는 화장실 변기통에 현금 300만원을 숨겼다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장부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이 표시돼 있는 등 광범위한 매표 행위도 추정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진지역에 대규모 ‘과태료 폭탄사태’가 예고되고 있는데다 전일 조합장이 대출비리로 낙마해 치

러진 선거가 또 다시 돈선거로 변질 경우 지역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이미 조합원 10여명이 선관위에 현금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A(50·강진읍)씨는 “전일 조합장 비리로 치러진 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도 비리로 낙마하고 수많은 군민이 돈선거 의혹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히 진상이 밝혀져 지역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명이 경합을 벌인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A씨가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김중섭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장성농기센터 강석원씨

‘올해의 스타지도사’ 선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강석원(48·사진) 특화 축산담당장이 농촌진흥청 선발전 ‘2008 우수건설턴트 스타지도사’로 선정돼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979년부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해 온 강씨는 북이·북하면을 중심으로 새송이버섯 전업농가 육성과 함께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복분자를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완도에는 바가지 요금 없습니다”

郡 ‘1업소 1담당제’ 등 행정력 집중

‘완도에는 바가지 요금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퍼서철을 앞두고 완도군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완도군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비싸다·불결하다·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켜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13일 공무원 ‘1업소 1담당 책임제’ 발대식을 갖고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완도읍과 신지면에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 103개소는 김중식 군수를 비롯해 광영체 교육장, 정광록 경찰서장, 김두석 해양서장, 김용일 완도군 번영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정하택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담당공무원들이 1개 업소를 책임지고 부당요금 근절과 좋은 식단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박만재 완도군 사회과장은 “업소에 가격표를 제작해 배부하고 부당 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바가지 요금이 없는 완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피투게더 4050싱글열차

바가지요금, 노골적 매수, 부패, 빈부격차,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주요이벤트

- 축하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 무료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 축하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 무료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 축하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 무료공연: 노년층, 노년층, 노년층

문의: 527-3388

ANYCHE CHAIR

기술과 환경을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무인공정

Anyche